



Original Article

## Experiences of Unwed Mothers

Choi, Yang-Ja<sup>1)</sup> · Kim, Kwuy-Bun<sup>2)</sup>

1) Professor, Redcross College of Nursing, 2)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Science

### 미혼모 경험

최 양 자<sup>1)</sup> · 김 귀 분<sup>2)</sup>

1)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2)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교수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unwed mothers, to describe the structure of the understanding of this experience for mothers and to explore nursing interventions for this situation. **Methods:** The subjects were 4 unwed mothers. The data was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s from February 2004 to June 2004. Each person was interviewed 4-5times, taking about one and a half hours for each session. Data was analyzed by the phenomenological method suggested by Giorgi. **Result:** The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 of unwed mothers resulted in "lightness of sexual cognition", "knowledge deficit of pregnancy", "suffering form pregnancy", "ambivalence of the situation", "appearance of mothering", "worrying about society's view". **Conclusion:** Sex education programs, a one-round, formal lecture-type education is presently dominant, so that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can be systematized at school and home. The difficult point for unwed mothers to endure is that society doesn't accept them; therefore, we have to change our point of view, and try to work out the problems.

Key words : Unmarried mothers, Experience

#### 서 론

인간은 태어나면 가족과 사회, 그리고 세계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 모든 정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넘나들고 있음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충돌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및 개방화와 함께 인간의 성과 관련된 사회현상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서구의 성 개방풍조의 유입, 성의 도구화와 상품화로 인한 저속한 성문화범람, 특히 대중매체의 노골화된 성적표현, 향락산업의 번성 등은 성 윤리의 아미노 현상을 초래하였다(Bae, 2001). 따라서 성에 대한 전통적인 도덕적 규범의 약화뿐만 아니라 죄의식을 둔감케 하는 사회 분위기 가운데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으며(Joo, 1999) 미혼모 문제는 유독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투고일: 2004년 10월 7일 1차심사완료일: 2004년 10월 21일 2차심사완료일: 2004년 11월 11일 최종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3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Yang-Ja(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Redcross College of Nursing

85-15, Pyung-Dong, Chongro-Gu, Seoul 110-102, Korea

Tel: +82-2-2129-1153 Fax: +82-2-2129-1177 E-mail: cyja@redcross.ac.kr

미혼모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거나 분만한 여자를 말하며 그 중에는 이미 결혼 한 기혼자가 사별, 이혼, 별거상태에서 법적 관계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도 있고 또 처녀가 혼전 임신을 한 경우를 말하며(NASW, 1995) 한국여성개발원은 보다 광범위하게 혼전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혼전임신을 했으나 낳기 전에 중절한 경우,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서 생겨난 자녀를 갖는 여성 모두를 미혼모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 전후사회 문제 도시화과정을 거치는 사회변화의 격동시기 60-70년대부터이다(Jeong, 2002).

특히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외국과는 달리 전통적인 윤리관과 도덕적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이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임신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여성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이중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 그 결과 미혼모의 문제는 더욱 음성화되고 생명경시는 물론 무분별한 낙태시술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미혼부는 없고 미혼모만 있는 나라로 임신관리, 분만, 출산 양육 등이 미혼모의 책임과 치부로 간주되면서, 이들은 사회로부터 괴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미혼모 사후관리가 중요하나, 열악한 현실, 사회적 통념 등은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미혼모 증가에 비해 미혼모관리시설은 그 수를 따르지 못하고,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는 상담과 보호에만 그치고 있다.

따라서 요즈음 세계 도처에 미혼모의 증가로 인해서 출산된 아기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법적, 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혼전의 임신은 대개수치심과 불안을 초래하고, 부모의 냉대으로 인한 지원 중단 등으로 태아의 성장이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혼모들은 임신 중 보호받기 어려워 유산 내지 사산율이 높으며, 체중부족 미숙아의 출산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므로, 임신출산과 관련된 건강위험요인들을 지니고 있어, 이들 미혼모를 위해 국가정책적인 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문제이며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목사, 교육자, 법률가 등의 여러 전문직이 함께 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는 그 발생정도를 미혼모의 특성상 통계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통계에 나타난 미혼모는 친권포기 상담을 의뢰한 미혼모 시설 입소를 원하는 미혼모의 통계에 불과하며 병, 의원을 통해 임신중절을 한 미혼모는 거의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어 통계상의 미혼모는 발생미혼모의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Jeong, 2002).

최근 연구에서 나타난 미혼모의 특성을 보면 과거에는 미

혼모의 배경이 주로 결손가정 출신의 저학력자가 대부분이었다면 오늘날의 미혼모는 고학력자와 다양한 직업분포(서비스직, 화이트칼라, 대학생 등), 정상가정 출신의 미혼모가 증가하여 그 범위가 특정가정이나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넓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아울러 새로운 시각에서 미혼모문제를 다룬 것으로 미혼모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정리 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미혼모정책에 대한 연구(Lee, 2002; Park, 2003), 미혼모 특성에 관한 연구(Bae, 2001; Hwang & Yoon, 1996), 미혼모 복지(Ko, 2002), 10대 미혼모에 관한연구(Cheon, Bae, Song, Song, & Jun, 2002; Choi, 2002; Do & Jung, 2001; Song, Jun, Cheon, Bae, & Song 2002; Yoon & Lee, 2002) 등으로 주로 사회복지학측면, 여성학적 접근 및 가족상담연구소에서 다루어듯이 미혼모접근에 있어서 미혼모에 대한 복지, 정책적 지원, 직업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및 미혼모 예방차원 등 주로 외곽적인 문제접근들이었다.

미혼모와 관련된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Joo(1999)와 Han(2001)의 현상학적 방법과 Han과 Yang(1997)의 근거이론방법으로 미혼모의 출산경험, 10대 미혼모의 임신과 분만체험 및 미혼모의 임신경험에 관한 것으로 간호학문에서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임신과 출산은 생산기에 있는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며 책임이고 권리이다. 출산과정은 여성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질병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신과 분만 모든 과정에서 관리를 받아야만 한다.

미혼모인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 임신으로 고 위험 임신군에 속하게 되며 낙태, 빈혈, 출혈, 저체중아 출생, 조산, 임신합병증, 수술분만의 가능성이 높아, 여성의 건강은 물론이고 신생아 건강과 발육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이들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고립과 부담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기의 발달과 여성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미혼모 문제를 인간에 대한 총체적 시각으로 확인하여 규명하는 일은 이들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확인,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미혼모들의 임신과 분만경험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 의미구조를 밝힘으로써 효과적인 간호중재개발에 기여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모의 경험을 그들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여 미혼모에 대한 실질적인 간호중재를 모색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미혼모들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여, 의미구조를 기술한다.
- 미혼모 경험을 통한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한다.

## 연구 방법

##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자료가 완전히 포화상태에 이르는 2월부터 6월까지 총 4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중인 출산 후 산욕기 여성으로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처음대상자를 소개받기위하여 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기관책임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자선정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참여자와 친숙해지기 위하여 입소자들의 시설 내 교육시간이나 진로를 위한 시설 밖 교육시간을 제외한 오후 모임이 있는 날을 택하여 연구자가 모임에 함께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결과 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면담장소를 기관과 협의하여 상담실을 활용하였다. 참여자에게 면담내용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한 후 면담을 시작하였으며 심층 면담시 소요된 시간은 1시간-1시간30분이었으며, 1인 평균 4-5회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시 질문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형태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도록 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면담시 대화내용의 누락 및 사실성확보를 위하여 참여자의 양해 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대화내용은 가능한 한 면담 후 즉시 연구자가 직접 참여자의 말로써 기록하였고, 자료분석은 전체적인 감각을 유지하고자하는 Giorgi(1970)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1. 참여자별 소개

#### 1) 사례1. 최 00씨. 29세

참여자는 가족으로 부모, 남동생 한명이 있다. 시설에 들어 오기 전 이미 출산경험이 있었고, 그 당시에 남자친구와 오랜 기간 사귀면서 관계를 맺어왔고, 그러던 중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으며, 임신하였을 때 오빠가 지우라고 했으나 못 지우고 아들을 낳게 된다. 아이 때문에 혼인신고하고 사는 동안 말다툼을 하게 되고 남자친구가 때리는 바람에 살기 싫어 이혼한 후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살면서 아이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돈을 벌게 되면서(아르바이트, 가벼운 서비스업) 이번 남자를 알게 되었다. 자취하는 남자친구와 시장도보고, 저녁도 함께 해먹고, 드라이브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된다. 남자 친구가 자신을 의심하는 눈치를 보이고 술 먹고 행패를 부리자 절교를 선언하고 만나주지 않게 되었다. 여러 차례 찾아와서 다시 교체할 것을 요구했으

나 성실해 보이지 않아서 그만두기로 결심하였다. 헤어지고 한 달이 지난 후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얘기하기 싫었고, 혼자 감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유산하는 게 너무 싫고, 과거에 첫아이 낳기 전에 자궁외임시도 한 번 됐었고 해서, 수술이 무서워서 이번 아기를 낳게 되었다. 아기는 낳은 후 2일 만에 입양한 상태다. 지금 자신이 처한 현재입장을 부모님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전화도 못하고 있다. 외동딸인 자신이 너무 부모에게 속을 썩여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아이 낳고 산후조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요즘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 현재 마포에 있는 요리학원을 다니고 있고 자격증을 따면 친정엄마와 뭐라도 해보겠다는 다짐을 한다.

#### 2) 사례2. 이 00씨 24세

참여자는 가족으로 부모, 언니, 군인 간 남동생이 있고 양친은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각자 너무 바빠서 식사도, 출근도 각자 할 정도로 얼굴보기가 힘든 환경이다. 병원에서 무자격 보조직으로 근무했었고, 습관적으로 3-4개월 근무하는 몸이 좋지 않아 자주 집에서 쉬곤 하였다. 쉬는 동안 심심하여 컴퓨터를 하게 되었고 유라이크 온라인게임에서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다. 참여자가 늦게 귀가하는 날에도 어김없이 컴퓨터 상에서 기다려주고 하여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만나게 되고 몇 차례 만난 후 관계를 맺고 하다가 집을 나와 부산 남자친구 집에서 살게 되었다. 어느 날 라면을 먹는데 속이 울렁거리 임신을 의심하면서 오빠 아버지에게 낳고 싶다고 하였으나 반대하여 어쩔 수 없이 유산하게 되었고, 유산 후 집에서 나와 여인숙에서 지내게 되었다.

오빠가 단순노동 하러간 사이 혼자 여인숙에 있었으며 한 달 동안 관계를 하지 않다가 한번 맺은 것이 또 임신이 되어 유산하려했으나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5개월이 넘게 되어 하는 수없이 친정엄마에게 사정하여 유산비용 80만원을 받았으나 그 돈이면 유산해주겠다던 병원에 다시 갔으나 처음 말과는 달리 85만원을 내라고 하여 5만원이 모자라 할 수없이 그 돈을 들고 부산에서 서울 신길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호소를 통해 아기를 낳아서 입양시키기로 했으나 입소 때 입양 보낼 생각과는 달리 아기가 빠가 키우자고 하여 현재 보호시설에서 양육 상태다. 아기는 빠는데 문제가 있고, 선천성 유문협착증으로 병원을 들락거리는 입장에 놓여있다. 아기는 벌써 백일이 지났고 시설에서 나가야하지만 정해진 곳이 없어 모자원으로 갈려면 오빠와 혼인신고를 하고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참여자에게 입적시켜 일년 동안 살 예정이다. 이제 모자원으로 옮겨지면 병원보조직을 위한 정식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을 다닐 생각이다.

3) 사례3. 강 00씨 27세.

참여자자는 부모, 딸 셋 중 막내이며 회사에 다니면서 지역 내 친선 모임에서 남자친구를 처음 알게 되었다. 사귀면서 남자친구가 나름대로 피임을 했지만, 처음 임신하게 되어 오빠와 상의 하에 낳아서 기르기로 하고 출산하였다. 그러나 친정 어머니는 결혼도 하지 않은 자신의 딸이 임신한 사실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주위 눈 때문에 쉬쉬하면서 유산을 권유하다가 참여자가 낳겠다고 하여 주위 아무도 모르게 반강제적으로 보호시설에 끌려와 출산한 상태다. 이제 퇴소하면 오빠네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다음 해에 결혼을 할 예정이다.

4) 사례4. 이 00씨. 29세

참여자자는 아버지가 안계시고, 오빠가 이혼한 후 4살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

길에서 지금아기아빠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직후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21세 때 유산경험을 한 상태였다. 친정어머니와 이모의 출산 반대가 너무 심했지만 자신이 과거 때문에 임신 못할 줄 알다가 임신한 것에 대해 나름대로 기쁨을 느꼈다.

집에는 알리지 않고 친구 집에 가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보호시설에 들어오게 되었다. 애기 아빠에게 출산사실을 알리자 자신이 기혼자라고 말하였다. 친정어머니는 애기 아빠가 기혼자고 책임질 상황도 아니니 혼자 키우지 말고 힘드니 입양 보낼 것을 강요하였고, 혼자 키우려면 집과는 관계마저 끊기를 바랐다. 현재 어머니의 반대와 애기 아빠와의 연락도 잘 안되는 상태이지만 양육으로 마음을 굳히고 애기에게 젖을 물리면서, 아기 낳은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아기가 자신을 아는 듯한 반응에 자신이 엄마임을 스스로 깨닫고 있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애기와 살아갈 거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애기 아빠가 기혼자이기 때문에 남의 가정을 깰 생각은 없고 다만 양육비 보조받기만을 원하고 있다. 사회에 나아가 일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바보가 된 듯 재취업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2. 미혼모 경험에 대한 의미구조

미혼모 경험의 의미구조는 첫째, 가벼운 성인식 둘째, 임신 증상에 대한 지식부족 셋째, 임신사실에 대한 고심 넷째,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양가감정 다섯째, 모성본능에 대한 출현 여섯째, 사회적 편견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

Focal meaning	Theme	Raw data
가벼운 성인식	성에대한 개방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자들은 다 알면서 당하는게 여자잖아요.</li> <li>• 짧은 사람이니까. 어찌어찌하다보니까 잠자리도 같이하고---</li> <li>• 너무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같이하잖아요.</li> <li>• 결혼생각은 안하고---요즘은 그런거 같아요. 잠자리를 했다고 해서 꼭 결혼해야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걸요. 정말요.</li> <li>• 우연히 어디서 채팅 하더라도 번개팅 해가지고, 그날 술 마시고, 같이 잘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이---지금 거의 다 그래요.</li> </ul>
	성에대한 호기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채팅을 해서 서로 관계 맺고 돈 받고 그런 애들 많거든요.</li> <li>• 본인이 좋다고 한다면 굳이 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li> <li>• 오빠가 내 과거를 알고 있어요. 나도 오빠과거를 알아요. 서로다(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li> <li>• 조금---저두 이런 상황을 겪고 생각하다보니 성 이란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li> <li>• 서로 좋아서 관계 갖고 서로 관계 갖고 그러면 괜찮은데---</li> </ul>
성관계와 결혼은 별개의 것	성에대한 호기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들 호기심으로---인터넷에서 그런거 보고---비디오에서도 그런거 보고(성적 노출). 그러니까</li> <li>• 남자들 만나도 아! 호기심으로 만나서 손도 잡아보고, 팔장도 껴보고--- 키스도 해보고, 관계도 맺어보고, 그런 호기심으로 인해서 계속 가는거예요. 저희가 배운 것부터가 잘 못됐다고 보는 거예요.</li> </ul>
	성관계와 결혼은 별개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하는 사람하구만 관계를 맺는건 아니잖아요.</li> <li>• 그냥, 섹스는 섹스다---그건 뭐 혼인과 관계없이 그냥</li> <li>• 꼭 결혼할 사람하고만 성관계를 맺는 건 아니다. 그냥 결혼이 아니어도---가질 수 있다.</li> <li>• 결혼을 전제조건으로 뭐 하면 되고 결혼이 아니면 안되고(성관계)그건 아닌거 같아요.</li> <li>• 여행같이 가고 잠자리도 하고---알았을 때(임신사실)결혼이란 것도 생각하고 그랬죠.</li> <li>•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되니까 순결은 곧 그런게 ---생각했는데</li> </ul>
피임에 대한 지식부족	피임에 대한 지식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임약을 먹어야 될까? 산부인과에 가서 루폰지 뭔지를 착용해야될까. 고민중이에요. 부작용이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피임약복용시) 제주위엔 그런---사람 없었어요. 피임은 책에서 많이 봤구요.</li> <li>• 학교 때는 여기서 배우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피임을 배웠다하더라도 그걸 실행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데. 저는 그럴 때(그시절에)아무것도 몰랐어요.</li> </ul>

<Table 1> 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continued)

Focal meaning	Theme	Raw data
	피임에 대한 지식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임약을 먹어야 될까? 산부인과에 가서 루픈지 뭔지를 착용해야될까. 고민중이에요. 부작용이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피임약복용시) 제주위엔 그런---사람 없었어요. 피임은 책에서 많이 봤구요.</li> <li>• 학교 때는 여기서 배우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피임을 배웠다하더라도 그걸 실행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데. 저는 그럴 때(그시절에)아무것도 몰랐어요.</li> <li>• 나는 나중에 아이 낳을 몸이니까 나는 안 할테니까 오빠가해라. 했는데--- 콘돔도 했고---약으로---먹는 거. 계속 먹었거든요(오빠에게)</li> <li>• 피임을 왜 못 했냐,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li> <li>• 남자랑 사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안 된다. 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 아니라 그냥 조심하면서--- 그때는 피임이란 것도 전혀 몰랐죠.</li> </ul>
임신 증상에 대한 지식부족	피임에 대한 이해부족  임신·출산에 대한 가벼운 처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임을 하다가 잠깐 피임을 안해 가지고 임신이 된거거든요.</li> <li>• 처음에는 내가 피임을 하자고 했어요. 제가 하는거는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질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못하겠어.</li> <li>• 피임기구를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약국가서 사기가---쉽게 접할 수가 없었어요.</li> <li>• 임신이란 것도, 중절이란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임신하면, 결혼 전에 임신하면 당연히 지워야 되는 거구나</li> <li>• 친구한테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li> <li>• 결혼 안했으니까 가서 빨리 병원 가서 지워야지---그런 마음이었구요.</li> <li>• 그때도 나름대로 심각은 했지만---당연히 지워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li> <li>• 대부분은 농친 거가 많은 것 같아요(중절시기)</li> <li>• 그런 계도 있다잖아요(여자친구 중절 시킬 비용마련)</li> <li>• 남자에게로는 돈 건어준다잖아요. 여자친구가 임신했다 면은---</li> <li>• 여기서 성교육을 했거든요. 성교육에 관한 그런게---너무---우리나라는 체계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li> <li>• 성교육은 ---중 고등학교 때 성교육 하잖아요</li> <li>• 비디오 하나 딱 보여주고 이게 성교육이다.</li> <li>• 구체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비디오 하나 딱 틀어주고 이게 성교육이다. 이 정도로밖에 안 배웠어요.</li> </ul>
	미혼한 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이면 유치원, 초고등학생이면---학교에서 배울 때 대놓고 보여주고, 대 놓구서 가르쳐주는 게 훨씬 낫을 것 같아요.</li> <li>• 그런 것 좀 안하게끔(흡연)---권장도 해주셨으면---</li> <li>• 아이를 위한다면 몸가짐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흡연이 임신 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생각)</li> <li>• 친구들이(10대임부들)미리 알면 그렇지도 않을거고(임신지식이 있었다면) 남자, 여자심리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li> <li>• 저는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걸 아는데---어린친구들은 몰라요.</li> </ul>
임신 사실에 대한 고심	유산에 대한 권유  입양에 대한 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번 째 아이를 낳고나니까---유산 하는 게 너무 싫은거예요.</li> <li>• 그때(첫아이임신때)---오빠가 지우라고 그러는데. 못 지울 것 같다.</li> <li>• 수술하는 게 무섭기도 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낳아서 입양을 보내든지---</li> <li>• 결정을 못하다가 그냥 힘들 것 같아서---</li> <li>• 태동을 막 느끼는데---이 아이를 뭐 없애---지우자는 얘기도하고.</li> <li>• 집에서는 너무 많이---수술해라,</li> <li>• 수술하든가 빨리 조용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가족 입장에서)</li> <li>• 너무 무섭고---낳아가지고 다른---좋은 부모님 만나는 대로 보내자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 있기가 싫었어요. 입양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li> <li>• 진짜 가족끼리만 알고, 빨리 빨리 조용히 애를 어디 보내든가,</li> <li>• 낳아서 좋은 부모님 만나는 대로 보내자. 어머니는 그러셨어요.</li> <li>• 그때 엄마랑 저희 이모가 와서 저 설득하려고 하는 게</li> <li>• 헤어지는 거와 내가 저 남자와 임신하고는 연관이 없었던 거 같아요.</li> <li>• 헤어지는 거 하고는 또 별개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21세 때사귀던 남자와)</li> <li>• 임신한걸 알고 나서--- 얘기하기 싫었어요.</li> </ul>
감추고 싶은 심정	감추고 싶은 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울 것 생각하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싫었다고요(그사람과 살기 싫음)</li> <li>• 차라리 혼자 감당을 하자 그러고.</li> <li>• 일단 내가책임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 남자에 도움을 안받고</li> <li>• 임신한 것도 나 혼자 알았고, 낳기로 결심한 것도 나 혼자구</li> <li>• 임신한거를 알리지 못했어요.</li> </ul>

<Table 1> 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continued)

Focal meaning	Theme	Raw data
임신 사실에 대한 고심	감추고 싶은 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에는 못 알리겠구---</li> <li>• 처음에 임신한걸 알렸을 때 미안 한 게 제가 더 있었어요.</li> <li>• 혼자 해결도 못하면서도---혼자해결 할 수도 없으면서---</li> <li>• 혼자 어떻게 해결하려고 혼자, 애기아빠랑 하려고 하다가 안되가지고 여기 왔는데--- 처음에는 애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한테---제일 친한 친구들한테---</li> <li>• 지금 내 형편을 부모님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li> <li>• 아직까지 엄마한테 전화를 못 한거예요.</li> <li>• 아버지는 모르시죠. 아버지 알면 안되지.</li> <li>• 여기 오는데도 조금 반강제적으로 끌려왔어요. 그때 모르게 왔죠. 애기아빠한테 연락안하고--- 모르게 저를 여기 데리고 왔죠.</li> <li>• 저희 집에서도 그냥 친구네 집에 간 줄 알고</li> <li>•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혼자만 알고 여기 들어 왔거든요.</li> <li>• 무작정 5개월 때 들어 왔어요(애란원)</li> <li>• 진짜 가족끼리만 알고, 빨리빨리 조용히 애를 어디 보내든가, 수술하든가 빨리 조용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가족입장에서)</li> </ul>
	결혼을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때는 그냥 아기 가졌으니까 애기아빠한테 연결을 해서 잘 애기를 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맘먹었는데</li> </ul>
자신의 처신에 대한 양가감정	당황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려워지고. 어떻게 살 것 인가---이런 게</li> <li>• 계획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어가지고 좀 당황은 했어요. 솔직히---</li> <li>• 맨 처음에는 좀 ---당황하는 눈빛이 보이더니---나중에는 되게 좋다고.</li> <li>• 자기아이가 생긴다는게 좋다고 그러면서. 낳아서 키우자고 그러드라구요.</li> <li>• 사실을 부모님은---뭘랄까. 인정을 못하시더라구요.</li> <li>• 결혼도 안했고---계획도 없던 거라서---놀랜 게 더 많았구요.</li> </ul>
	후회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를 갖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li> <li>• 참 후회를 했죠. 내가 왜이새끼를 만나서 이런짓을 했을까---내 자신 반성을 많이 했죠.</li> <li>• 다시는---애를 낳아서---결혼하지 않은 이상은 아이를 갖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li> <li>• 처음엔 그 사람과 살 생각이 없었어요.(첫아이아빠)</li> </ul>
작은 기쁨	작은 기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쁜 건 있었어요. 왜냐면 저 나이가 있는데---</li> <li>• 나는 이제 평생 임신이 안 될 것 같다 그런---불안도 있었었는데---</li> <li>•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고---그렇지만 임신이 된거알구는 좀 되게 기뻐구요</li> <li>• 애기아빠랑 연결이 안되서---해결이 안 되서 이렇게까지 왔긴 했지만 그때는 기뻐구요(임신사실)---</li> <li>• 너무 이쁘잖아요.</li> <li>• 낙태한 경험이 한번 있어서 제가 임신이 안 될 꺼라구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li> </ul>
	원망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때는 누구는 저렇게 결혼하는데 나는 나이 먹고 지금 이 애를---</li> <li>• 원망은 가끔가다 일이 안 풀리면 부모님원망은 되요. 왜 나를 더 쪼이지 않고 풀어놔서 내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남자랑 자게 만들었나 그런 원망은 되요.</li> <li>• 나는 내 딸을 뽕뽕 싸매 갖고 키워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다짐이 생겨요.</li> </ul>
가족에 대한 섭섭함	가족에 대한 섭섭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정이 별로 없었어요</li> <li>• 아버지라는 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li> <li>• 다들 각자 일이 있으니까 의사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밥 먹는 것도</li> <li>• 안된다고 하니까---그러면 집에다 연락 끊고 너 혼자 해라---</li> <li>• 내가 혼자 키우는 걸 그걸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주변 사람들의 그런 것도 너무나 힘들어서 더--- 그래서 엄마만 알고 아무도 모르죠.</li> <li>• 너무 엄마한테 미안하구---미안하구---서운하구(와보지 않아서)</li> <li>•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li> <li>•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애기 낳 때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li> <li>• 좋은 부모님 만나는 대로 보내자 이런 말씀 하시니까--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 있기가 싫었어요.</li> </ul>
	모성본능에 대한 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낳은 건데---후회는 않 하거든요.</li> <li>• 그렇게 뭐 크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꼭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거는 --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된다는 게---꼭 결혼을 해야만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li> <li>• 뱃속에 있을 때는 키울 생각으로 입양이 아니라 키운다---키울 생각으로 계속 있어서--- 낳구 나서도 기뻐요.(마지못해 말끝을 흐림)</li> <li>• 지금은 주변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다 알릴 수 있어요. 알리고 싶어요.</li> <li>• 나는 내가 이렇게 애를 낳았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애를 키울 꺼다.</li> <li>• 이렇게 알릴계획이에요.</li> <li>• 여기서 나가구 계획이 세워지면 다 알릴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하구나---</li> </ul>

<Table 1> 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continued)

Focal meaning	Theme	Raw data
모성본능에 대한 출현	모성을 깨달음	<p>처녀가 애를 낳네 이렇게 봐주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근대 솔직히 나는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나를 한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갔고 대단한 일을 했다--좀 자랑스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가락질 하면서 얘기할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 같아요.</li> <li>• 여기를 통해서 제를 낳는데--실감이 낳는데도 잘 안되더라구요. 낳았는데도--모르겠어요</li> <li>• 내가 정말 낳건지--내 앤지--내가 정말 얘기엄마가 됐다--</li> <li>• 임신했을 때는 배가 부르니깐--그냥 내가 임신 했구나 이런게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출산에 대한 느낌이 없음) 실감이 안나요.</li> <li>• 젖 물리고 애기가 젖 빨고 애기 먹는거 보고--그때는 자꾸 지나면서 아! 애가 내 애기구나 내가 애 엄마구나-- 젖 물리면서 진짜 그런 게 느껴지고(자신이 엄마임을, 모성을 인식함)-- 원망은 없죠. 제가--한거구, 제가 결정한 거구, 제가 한거니까--</li> </ul>
	아이아빠에 대한 분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기 낳고 금방 알리니까 자기가 기혼자래요</li> <li>• 애기아빠가 없이 내가 혼자 그 고통을--그게 화가 더 컸어요.</li> <li>• 근데 불러구 하지들 않는 것 같아요.</li> <li>• 자꾸 정이 들어서 겁나서 그러는지 곳이 불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똥해갔고 저도 그런 사람한테 막 보여주고 디밀고 싶지 않은거예요.</li> <li>• 근데 보여 줘야 될 것 같아요.</li> </ul>
	양육에 대한 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이나 양육에 대한 갈등은 전혀 없구요(자신은 확고하게 양육으로 결심) 앞으로 뭘 해서 어떻게 인제 거처를 마련하며 어떻게 할 건가</li> <li>• 잠깐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li> <li>• 애기랑은 못 헤어지겠어요.</li> <li>• 지금은 점점 점점 애기랑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엄마만 찾고 그러니까 저런 애를 어떻게--못해--</li> <li>• 젖 물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li> </ul>
	입양·양육에 대한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를 키울려면 큰 맘 먹고 키워야 될 것 같아요.</li> <li>• 잠이 안오잖아요. 신생아실에 막 보고 싶구. 가서 수유를 하는데도--난</li> <li>• 원래 저는 여기 들어올 때 입양이었어요. 입양이었는데 오빠가 양육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하게 됐는데--잘 택한 것 같아요. 양육 하는게</li> <li>• 오빠가 엄마는 나를 버리고 갔지만 나는 내 자식 못 버린다구--죽이되든 밥이 되든 내가 키울꺼라구--엄마처럼 매정하게 안간다구 그러면서-</li> <li>• 미혼모 시설이 있다는데--여기생활하다보니까점점마음이바뀌더라구요.</li> <li>• 어차피 알릴꺼면 애기낳기 전에 알리자--해서--</li> <li>• 죽이지는 못하고 자기가 인제 키울 수없으니까 입양을 생각하구.</li> <li>• 너 혼자 어떻게 키우나--입양(아주작은 목소리로)그냥 보내라구</li> </ul>
양육비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처할 집만 딱 마련되면 될 것 같은데--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li> <li>• 당장 가야 될데가 있어야 되니까--</li> <li>• 양육비정도 책임져 주는 거--그러면 혼자 키우겠다.</li> <li>• 저는 경제적인 것만 도움을 받고--</li> <li>• 거처가 마련이 돼야 출생신고들--사람 생기면 결혼해야죠.</li> </ul>	
사회적 편견에 대한 우려	<p>사회적제약에 대한걱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사회에서 약간 체제를 받겠죠. 일 같은 경우도. 일과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은--</li> <li>•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이대로 사회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li> </ul> <p>사회적 시선에 대한 당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모라는 거에 대해서 결끄럽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li> <li>• 근데 저는 제자신이 미혼모라구해서--누구한테 끌릴 것까지는 없다고봐요.</li> <li>• 미혼모에 대해서 신경별로 안 써요. 엄마한테는 죄스럽죠. 엄마한테는--제가 정식으로 결혼 안 한 거구--</li> <li>• 저는 크게 뭐 부끄럽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미혼모에 대해)</li> </ul> <p>미혼모 지원 센터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모가 안생기라는 법이 없으니--교육센터가 있었으면--아이를 유괴하는 일도 없고</li> <li>• 이런 미혼모 센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li> <li>•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몸가짐을 잘 가져야된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휴먼도 많이 하잖아요. 어린친구들--</li> <li>• 아유--마음이 너무 아픈데요--뉴스 보면 아이 낳서 버리고 막--</li> </ul> <p>미혼모 시설 이런 게 좀 대중화가--메스컴에 더 많이 알려져야--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p>	

미혼모 경험의 의미구조는 <Table 1>과 같다.

1) 미혼모경험의 의미구조

미혼모경험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된 일반적 의미구조는 1)가벼운 성인식 2)임신증상에 대한 지식부족 3)임신사실에 대한고심 4)자신의 처신에 대한 양가감정 5)모성본능에 대한

3. 이야기줄거리

<Table 2> Theme and focal meany in unwed mothers

Focal meaning	Theme
1) 가벼운 성인식	- 성에대한 개방적 사고. 성에대한 호기심. 성관계와 결혼은 별개의 것
2) 임신·증상에 대한 지식부족	- 피임에 대한 지식부족. 피임에 대한 이해부족. 임신에 대한 가벼운 처신. 미흡한 성교육
3) 임신사실에 대한 고심	- 유산에 대한 권유. 입양에 대한 권유. 감추고 싶은 심정. 결혼생각.
4) 자신의 처신에 대한 양가감정	- 당황스러움. 후회스러움. 작은 기쁨. 원망스러움. 가족에 대한 섭섭함
5) 모성본능에 대한 출현	- 출산에 대한 자긍심. 모성을 깨달음. 아기아빠에 대한 분노. 양육에 대한 확신. 입양·양육에 대한 갈등. 양육비 부담.
6) 사회적 편견에 대한 우려	- 사회적 제약에 대한 걱정. 사회적 시선에 대한 당당함. 미혼모지원 센터 요구.

출현 6)사회적 편견에 대한 우려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Table 2>로 구성하여 이야기하고자한다.

첫째, 미혼모 경험의 중심의미는 <가벼운 성인식>으로 확인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성에 대한 개방적 사고, 성에대한 호기심, 성관계와 결혼은 별개의 것으로 3개의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들이 말하는 성은 자연스럽게 받아들 이고, 결혼과 연결시키기를 부정하고 있으며 근자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 또한 자유롭게, 얼굴 없이 주고받는 통로 임과 동시에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자리 매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도 성관계 상대가 만난지 몇 개월에서부터 잘 모르는 사람까지로(Cheon, et al., 2002), 우연히 만나서, 컴 퓨터 채팅으로, 순간적인 충동으로(Bae, 2001; Jeong, 2002), 만나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때 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Han, 2001), 청소년들이 교제 중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Kim, 2001). 또한 10대 미혼모인 경우 성 상대자가 남자친구인(76%)데 비해 20대 미혼모인 경우 그 냥 아는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한 비율이(30%) 높아 성생활이 개방적이고, 다양함을 보여(Kang, et al., 2002) 주는 연구들과 같은 결과였다(사례 1, 2, 4). 어린나이에 성 상대자가 여럿이고 일찍부터 성관계를 갖게 되면 자궁경부의 발육미숙으로 만성자극에 따르는 성병이나 자궁경부에 치명적 인 질환이 유발될 수 도 있다. 결국 미혼모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가벼운 성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 들의 성에 대한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사고와 시각전환을 위한 성교육이 요구된다.

둘째, 미혼모경험의 중심의미는 <임신증상에 대한 지식부족 >으로 피임에 대한지식부족, 피임에 대한 이해부족, 임신·출 산에 대한 가벼운 처신, 미흡한 성교육으로 4가지의 주제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임을 꼭 해야 될까, 어떻게, 무 엇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해야 된다, 배운 것 같은데 실천하

기가 쉽지 않았다고 미혼모들을 말하고 있다(사례 1, 2, 3). 성관계할 때마다 피임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64.1% (Kim, 2001), 복부의 크기가 변화되어도 똥배인 줄 알았다, 입덧이 있어도 입덧인줄 모르고, 월경이 장기간 없어서야 임신임을 막연하게 의심 하고 있으며, 임신이유를 피임실패(14%), 실수, 우연히 라고 대답한경우가(72%) 높게 나타났다(Kang, et al., 2002). 또한 임신을 인지하는 시기가 매우 늦어 임신3개월 이 전에 인지하는 경우는 40%이내이며 6개월 정도 됐을 때 인지 한 사람도 30%나 되었다(Do & Jung, 2001; Kang, et al., 2002) 피임을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원인은 피임에 대한 지식 부족과 정보부족(Choi, Kim, & Oh, 2004; www.chosun.com. Health)으로 왜곡된 성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성에 대한 낭만 적 태도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성관계를 선호 하거나, 효과적인 피임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인수요 의사가 중요함을 강조한다(Kim, 2001). 즉 성에대한 지식 중 특히 피임에 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 이것은 성 지식 습득경로로 학교의 비중 이 크다고는 하나 어떠한 내용이 교육되어지고 있는가(Cheon, et al., 2002)라는 지적이다.

과거보다 성경험과 혼전순결, 혼전동거에 대해 상당히 개방 적임에도 불구하고 비디오를 통한 피상적인 성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성에대한 지식이나 성에대한 지식습득경로가 과거 10 년 전에 비하여 거의 달라지지 않고(Ko, 2002)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을 보게 된다. 따라서 미혼모들은 상대 남자와 안정된 신뢰와 사랑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상대의 요구에 의해 성관계를 갖기 때문에 성에 대한 가치관과 주체성을 확 립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미혼모경험의 중심의미는 <임신사실에 대한 고심>으 로 유산에 대한 권유, 입양에 대한 권유, 감추고 싶은 마음, 결혼을 생각하는 4가지 주제로 나타났으며 임신사실을 안 후 에 대처를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주위 사람



들로부터 유산하기를 권유 받기도 하고, 감추고 싶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고통받는가하면 가족이 안 경우 특히 어머니가 알게 된 경우에는 주위 시선을 의식하여 조용히 입양보내기를 희망한다(사례 1, 2). 드물지만 결혼을 할까도 생각하지만 임신한 사실을 상대남자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는 것과 상대가 기혼자로 밝혀지므로 써 양육비만 지원이 되면 스스로 양육하기를 결심하기도 한다(사례2, 4). 이는 Yoon과 Lee(2002)의 연구에서도 양육비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고려된다면 현재의 임신을 유지하려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미혼모들은 임신사실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임신사실을 은폐하려하였으나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으며 집에서조차 주위시선 때문에 있을 수 없어 친구 집을 전전하였고 나중에는 관련시설에서(Joo, 1999, Kim, 2001)기거하게 된다든지, 임신사실을 안후 미혼모 어머니들의 조치는 입양, 유산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Bae, 2001; Yoon & Lee, 2002).

또한 미혼모가 가정에 존재함으로써 가족성원들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 할 수밖에 없으며 미혼모 당사자의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고통이자 낙태, 입양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데 주목해야할 것이다(사례 1, 3, 4).

넷째, 미혼모경험의 중심의미는 <자신의 처신에 대한 양가 감정>으로 당황스러움, 후회스러움, 작은 기쁨, 원망스러움, 가족에 대한 섭섭함 과같이 5개의 주제로 확인되었다.

계획된 임신도 아니고,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당황스러웠으며, 미혼모 부모는 자신의 딸이 임신한 사실을 인정 하려들지 않았다(사례 1, 2, 3, 4).

한편으로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 임신하였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과거 중절 수술경험이 있어서 임신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임신이 되어 기뻐하는 참여자도 있다(사례 1, 4).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엄하게 키우지 않은 부모에 대한 원망과 원만한 가족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살았기에 오늘과 같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사례2, 4).

앞에서도 지적 하였듯이 미혼모가 되는 사람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전반적인 견해이다. 많은 연구에서 미혼모 발생원인에서 부모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우 등 가정적 요인이 미혼모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Bae, 2001; Kim, 2001; Song, et al., 2002)는 것과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또한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두렵고(62.3%), 기쁨도(3.8%)있었음은(Yoon & Lee, 2002) 본 연구에서처럼 당황스러웠고, 작은 기쁨이 있음과 임신한 것에 후회도 한다 와 같은 결과다(사례 1, 3, 4).

다섯째, 미혼모 경험의 중심의미는 <모성본능에 대한 출현>으로 출산에 대한 자긍심, 모성을 깨달음, 아이아빠에 대한 분노, 양육에 대한 확신, 입양·양육에 대한 갈등, 양육비부담의6가지 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혼모들은 아기출산에 대해 후회를 하지 않으며, 아기 낳는 것이 죄짓는 것도 아니므로 떳떳하고, 꼭 결혼을 해야만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사례 1, 2, 3, 4).

자신이 아기를 낳은 것에 대한 현실감이 없다가 젖을 물리면서 차츰 모성을 깨닫게 된다. 한편 자신이 혼자 출산에 대한 고통을 감수한 것에 대해 화가 나고, 아기아빠가 아기를 보려고 하지 않아 몹시 언짢아 한다. 아기양육에 대해서는 젖을 물리면서 확고해졌고, 양육비 보조를 희망하고 있다(사례 4).

우리나라 미혼모들의 경우 1995년 서대문구청 조사에서 86%가 입양을 선택하고 4%만이 직접 아기를 키우기를 바라고, 또한 애란원 내부자료(Yoon & Lee 2000에서 인용됨)에 의하면, 1999년에는 10대 미혼모 중 90%가 입양을 선택하고 10%가 양육을 선택한 것을 보이고, Yoon과 Lee(2000)에 의하면 2000년에도 89.3%가 입양을 선택하고, 10.7%가 양육을 선택하고 있어, 직접 양육하고자하는 미혼모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한다고 해도 본 연구 참여자에서처럼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섯째, 미혼모경험의 중심의미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제약에 대한 우려, 사회적 시선에 대한 당당함, 미혼모지원센터 요구로 3개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보호시설 퇴소 후 경제적 자활을 위해 직장을 구하려하지만 특별한 기술도 없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사례 1, 2, 4). 또한 미혼모들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사례 1, 2, 3, 4). “옛날에는 미혼모 그러면 낙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되지 않아요. 자랑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게 꼭 죄라고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Song, et al., 2002) 와 미혼모가 된 것에 대해 부끄럼, 죄의식을 느끼기보다 실수로 받아드리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Hwang & Yoon, 1996)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혼모들은 임신사실에 대하여 인지가 늦고, 성적인 노출이 성충동의 일조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통해 적절한 안내를 받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미혼모의 증가에 따른 미혼모지원센터 요구는 미혼모보호시설이 전국에 8개소이며 모두 대도시에 집중되어있어 접근성이 문제로 임신초기 미혼여성이나 아기를 낳아 키우려는 미혼모들이 상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형편임(Ko, 2002)을 생각한다면 양적인 증가는 물론 다양한 상담 서비스가 쉽게 이루어져 양지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4. 간호중재방안

-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즉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춘기에 성의 중요성과 행동 결과에 대한 교육으로 성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전환은 물론 주체적인 성의식이 고취 될 수 있는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역할극)이 개발되어야 한다.
- 모성, 여성건강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계몽과 교육을 실시한다.  
임신 출산은 여성에 있어 기쁨과 축복이 되며 동시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임신사실에 대한 고심, 자신의 처신에 대한 양가감정 등을 상쇄할 수 있고 가족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혼모 지원센터, 일터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미혼모들이 건강하게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가 각 도시마다 설립되어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산 후에도 생활인으로 일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혼모의 살아있는 경험을 파악하고 그 의미구조를 확인 기술하여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상학적 방법으로 시도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미혼모로 연구 목적을 설명한 뒤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하였다. 참여자는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산육기 미혼모로 시설 담당자의 안내로 연구자가 직접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4명이었으며 면담은 심층면담으로 경험의 진솔이 포화에 이르는 시점으로 1인당 4-5회 실시하였고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2월부터 6월까지였다.

면담시질문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면담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허락아래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Giorgi(1970)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혼모경험의 의미구조는 1)가벼운 성인식-성에 대한 개방적 사고, 성에 대한 호기심, 성관계와 결혼은 별개의 것. 2)임신 증상에 대한 지식부족-피임에 대한 지식부족, 피임에 대한 이

해부적, 임신출산에 대한 가벼운 처신, 미흡한 성교육. 3)임신 사실에 대한 고심-유산에 대한 권유, 입양에 대한 권유, 감추고 싶은 심정, 결혼생각 4)자신의 처신에 대한 양가감정-당황스러움, 후회스러움, 작은 기쁨, 원망스러움, 가족에 대한 섭섭함. 5)모성본능의 출현-출산에 대한 자긍심, 모성을 깨달음, 아기야빠에 대한 분노, 양육에 대한 확신, 입양·양육에 대한 갈등, 양육비부담. 6)사회편견에 대한 우려-사회적 제약에 대한 걱정, 사회적 시선에 대한 당당함, 미혼모지원센터요구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미혼모의 경험은 성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처신과 지식부족으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봉착되고, 이로 인한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가족,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사춘기 이전부터 이루어져 성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고취시키는 물론,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미혼모경험을 토대로 한국문화기술지연구를 제언한다.
- 미혼모 출산아를 위한 국내 입양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 되어야 한다.

#### References

- Bae, Y. M. (2001). *A study on the individu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family system of unmarried adolescent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Bae, M. Y. (2000). *An analysis on factors the growth of unmarried mother*, Unpublished master thesis, Taejon University, Taejon, Korea.
- Cheon, H. J., Bae, S. H., Song, M. H., Song, H. A., & Jun, G. Y. (2002).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institutionalized unmarried teenage mothers: Pregnancy and behaviors, *Korean Family Academic Society*, 20(4), 1-12
- Choi, S. Y., Kim, Y. H., & Oh, H. S. (2004). A study on sexual behavior, pregnancy and contraception knowledge in female adolescent, *Korean J Women Health Nurs*, 10(1), 42-50.
- Choi, S. H. (2002). Need of teen parent who loss their babies for adoptions, *J Soc Sci Res*, 6(2).
- Do, M. H., & Jung, E. M. (2001). A study on problem of teenage mothers and welfare policy, *J Adolescent Welfare*, 3(2), 1-11.
- Giorgi, A. (197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 A phenomenologically based approach*. New York: Harper & Row.
- Han, Y. R., Yang, S. O. (1997). The study on the pregnancy experiences of unmarried mothers. *J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1(2), 194-208.

- Han, J. S. (2001). *A phenomenological study on unmarried teenage experience of pregnancy and delive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aejon, Korea.
- Hwang, O. J., & Yoon, M. H. (1996). Th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characteristic of unwed mother in Korea, *Dongguk Journal: Humanities & Social Sciences*, 35, 219-247.
- Jeong, E. H. (2002). *Problem of and preventive leasures for unmarried mothers in Korea*, Unpublished master thesis, Myongji University, Korea.
- Joo, S. N. (1999). *A study on the childbirth experience of unmarried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M. S., Lee, J. Y., Lee, S. H., Oh, E. H., Lee, C. W., Choi, B., Shin, Y. D., & Kim, D. J. (2002). The obstetrical and statistical aspects of the unmarried mother, *Korean J of Obsteterc & Gynecology*, 45(8), 1347-1352.
- Kim, M. J. (2001). A study on stress of unmarried mothe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8(1), 220-238.
- Ko, J. J. (2002). A study on the welfare measures for unmarried mothers, *Donga Acd*, 28, 201-215.
- Lee, H. S. (2002). *A comparative study of teenage pregnancy poli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on, Korea.
- NASW (1995).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Washington DC: NASW Press.
- Park, E. H. (2003). *A feminist study on unmarried mothers and the policy*,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H. A. J., Jun, G. Y., Cheon, H. J., Bae, S. H., & Song, M. H. (2002). A study on the educational need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institutional unmarried teenage mothers, *Korean Family Academic Society*, 40(9), 63-78.
- Yoon, M. H., & Lee, J. Y. (2000). Attitudinal factors related to release for adoption among teen-age unwed mothers,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2(1), 67-82.
- Yoon, M. H., & Lee, J. Y. (2002). Characteristic of teenage unwed mothers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3(3), 149-169.